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챌린지 마켓에 지원한 ‘배우미’대표 박 병근이라고합니다.

목차로는 기업소개를 시작하여 콘텐츠소개 그리고 향후 목표 및 계획에 대해서 설명할 예정입니다.

첫번째로 기업소개 입니다.

저희 배우미 기업은 현재 한국산업기술대학교의 가족회사이며 현재 학교의 대학생들로 인원을 구성하고 있으며 그들의 실무경험을 쌓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기업은 사회적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기업의 이름 배우미는 한글로하면 배움의 의미를 담고, 영문으로 적게 된다면 BAE U&ME의 형태로 교육자와 피교육자간의 친한 관계를 지향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희는 본 어플 서비스를 제공하며, 더 나아가 우수한 한글을 전 세계에 보급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되는 것을 목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의 콘텐츠를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자면

크게 3가지 간단한 자음모음교육, 일일 학습을 제공하는 단어장 그리고 일반회화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음모음교육파트는 해당되는 자음 모음의 읽는 방법과 음성을 지원하며 학습한 자음,모음을 그림카드를 보여주며 단어를 쉽게 접할 수 있게 제작하였으며,

단어장파트는 데일리학습, 즉 일일학습이 가능하도록 1Day에 10개의 한글단어를 제작하여 현재 110여개의 중복이 없는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화파트 같은 경우에는 메신저나 소설을 읽는 회화의 상황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현재 30개 정도의 회화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추가가 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목표 및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 배우미는 현재는 베트남어를 지원하고 있지만 추후에는 더욱 더 넓은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다양한 언어를 지원할 것이며, 또한 성인외국인교육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려 나아가

한글유아교육과 외국인분들을 상대로 국내관광여행 등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설 수 있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